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특권구조 바꾸겠다”

문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사람중심 경제 양극화 해소
부정·부패 척결로 적폐청산
남북문제에 ‘운전대론’ 강조

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에는 안보, 경제, 개헌 등 국정 구상이 대거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지렛대로 ‘국가 역할론’이라는 최대 화두로 내걸었다.

우선 문 대통령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성장과 실업이 고착화하고 중산층이 무너진 현실에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20년 전 김영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을 회고하며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뀌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IMF 위기 때 희생한 국민이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제 국가가 나서 국민을 위한 경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촛불혁명’은 바로 국가가 제 역할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에서)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며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다.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현 시기 국가의 역할을 경제·사회·안보 등 3대 분야로 나누고 ▲사람 중심 경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국정목표를 다시 한 번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IMF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벌과 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과실을 각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 저성과와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의다.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 전반에 온존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특권을 척결하기 위한 ‘적폐청산’을 다음 화두로 내걸었다. 과거 정부에서 정치개입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가 드러난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또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

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나타났다. 개헌이 포함하는 다양한 이슈 중에서 여야의 이견이 가장 덜한 부분을 부각해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속도를 붙여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야당 소속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여야의 교집합부터 찾아 간극을 좁혀보자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환경권 등 광의의 헌법적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이슈를 언급해 우회적으로 개헌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야권을 향해 개헌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특위의 논의를 오히려 더디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구선수 이미지도 매혹적인 예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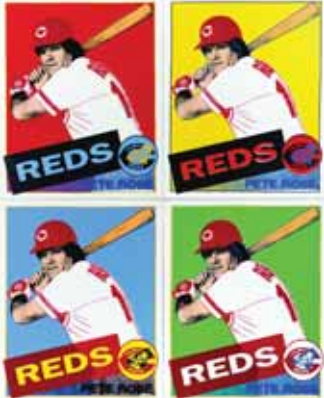
김은영의 ‘그림 생각’

(201) 야구

지난 주 코리아 시리즈 1차전을 보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다녀왔다. 평소엔, 4시간을 훌쩍 넘기도 하는 그 긴 스포츠경기를 보러가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야구장 한번 다녀온 후 야구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면서 두 배의 즐거움을 누렸다.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면서 새로 탄생한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도 이제는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팝아트의 아이콘 앤디 워홀(1928~1987)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대중에게 유명해진 스타의 이미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작가였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모티브로 초상화 작품을 제작했던 앤디 워홀에게 전설적인 야구 선수 피트 로즈(1941~)는 각별했던 것 같다. 앤디 워홀의 ‘피트 로즈’(1985년 작)는 미국 프로야구 팀 신시내티 레즈에서 활약한 야구선수 피트 로즈의 이미지를 아크릴 페인트를 사용하여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신시내티미술관의 의뢰로 작업한 이 작품은 야구카드를 모방하여 오른손 타격자세를 한 피트 로즈의 모습을 네 가지 이미지로 반복했지만 4개의 배경색으로 제작한 까닭에 같지만 조



앤디 워홀 작 ‘피트 로즈’(1985년 작)

금씩 다른 차이를 보여주면서 앤디 워홀만의 고유한 예술성을 각인시켜 준다. 선수생활 은퇴 후 신시내티 레즈에서 감독으로 재임하기도 했던 피트 로즈는 자신의 팀에 내기를 건 도박사 실이 알려져 메이저 리그에서 영구 제명되기도 했는데, 이는 워홀 사후의 일이라서 작품 속에서나마 영웅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구두광고 디자이너 등 상업미술을 먼저 시작했던 워홀은 상업미술을 할 때는 순수회화의 고상한 감각을 이용해 능력을 인정받고, 화가가 되어서는 상업미술의 기교를 차용해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미학을 보여주었던 영리한 작가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 만들어진다

는 의미로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불렀는데, “사업을 잘 하는 것도 매혹적인 최고의 예술이다”면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집념을 도발적으로 고백한 바 있다. <광주비엔날레광주프리부장·미술사박사>

속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 시절 요구한 법안은 받아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감한 복지 증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지도부의 지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국회가 후속조치 마련에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오늘은 오셨네요”라고 인사하자 홍 대표는 “여기는 국회니까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여야 대표 차담회 ... 대화는 ‘싸늘’

야, 예산안·입법안 불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1일 국회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온도차는 여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은 한중관계 개선이나 민생회복 과제 등을 언급하며 덕담을 이어갔으나, 야당 대표들은 정부·여당의 내년 예산안과 입법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

과 20여 분 동안 차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고용상황만 좋아지면 경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니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스 두 가지를 (문 대통령이) 가지고 오셨다”며 “한중관계 물꼬를 튼 것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야당 측은 문 대통령에게 더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요구하며 ‘쓴소리’를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경제 공간은 분명한 재원 대책을 갖고 풀어야 하지만, 정치 공간은 옥죄지 말고 많이 배풀어야 정치가 여유로워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엔 대통령이 역할을 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과 관련,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

5·18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대기



제보를 받습니다

광주일보 062-220-0633 / 국방부 5·18특조위 02-748-0975

물로(YOIN)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 탭 S2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가임 기념품!!

보조배터리

손톱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온병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안환 및 예적금발행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저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

예금특판

정기에탁금

1년 **2.4%**
2년 **2.5%**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